www.kdi.re.kr

Korea's Leading Think Tank KDI

보도해명자료	보도일시	2017년 4월 24일(월) 배포시
	담 당 자	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(044-550-4737, jkyou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4월 24일(월)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매일경제신문 24일자, 「오락가락 KDI 평가 … 3조 신안산선 사업자선정 논란」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□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개발연구원(KDI)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서 평가와 관련,

○ "평가단은 서류 미제출이 '설계 부적격'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" 하였으나, "평가단이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해 '서류 미제출은 중대 사유는 아니다'고 뒤집은 것"으로 보도하고,

○ 또한 "KDI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지난 14일 이를 문제 삼아 1차 부적격 처리했지만 ..... 2차 투표에서 적격으로 뒤집었다."라고 보도

<KDI 입장>

□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의 평가를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,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 과정을 운영하였음.

○ 본 평가의 수행 주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며, 주무관청이 고시한 "시설사업기본계획"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음.

○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심사 과정은 "시설사업기본계획"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임을 밝힘.